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

본 문 전도서 3장 1-10절

요나서 4장 5-11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달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말씀하며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쉽게 이야기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섭리사 모든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더 깊이 깨닫고 삶으로 더 차원을 높여서 변화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힘차게 증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오셨지만, 교회에서만 신입생이지, 시대가 발달되어서 사니까 생각하는 수준은 교회에 먼저 온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고로 말씀을 깨닫기 쉽고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로 해 주지만, 한 차원 높은 말씀을 해 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달에 새로 오신 여러분들과, 최근에 새로 오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히 같이 살 인연입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고, 사랑하면서 가까이 살면 한 주 관련 속에서 자주 만나면서 같이 삽니다. 애인이 되어서 살면, 한집에서 평생 같이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의 세계도 그러합니다. 같은 하나님

과 주님을 믿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같은 급의 구원을 받고 살면, 그 영들이 같은 세계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됩니다.

이 시대 성약 복음을 만난 우리들은 34년 동안 같은 주를 믿고, 같은 진리로 기뻐하며, 새 역사 한 주관권에서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양손을 펴서 팔꿈치를 굽히고 가슴 높이로 들고 기본 제스처를 하면서

‘34년’ 할 때 양손으로 34년을 표현

‘새 역사 한 주관권에서 서로 하나 되어’ 할 때 양손으로 한 덩이를 표현)

서로 같은 주관권에 살면서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시대 최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육이 땅에서도 같은 주관권에서 살다가 우리 육신이 죽으면, 우리 영들도 같은 주관권 영계로 가서 만나 되, 그 안에서 각자 차원급대로 만나서 같이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정말 너는 보기 싫어. 죽어서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아.” 했던 자들도 자기가 그 주관권을 벗어나서 살지 못하면, 죽어서도 그 영들이 또 같은 주관권에서 만나 영원히 같이 살게 됩니다. 고로 차원을 높여서 아예 그 주관권을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방향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에 대해서 말씀할 것입니다. 종전에 들었던 ‘때’에 대한 말씀과 오늘 ‘때’에 대한 말씀은 맛도 다르고 자료도 다릅니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섭리사 모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듣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예배입니다. 고로 성자 주님께서 특히 미리 말씀을 준비하시어, 선생에게 ‘때’에 대한 극치의 계시를 보이시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선생 방에는 귀뚜라미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개월 20일 동안 내 방에서 나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이야기해 줄게요.

올해 7, 8월 한국의 여름은 4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로 너무 더웠습니다. 이 때문에 선생은 땀띠가 나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이날은 8월 7일이었습니다. 이날 귀뚜라미가 전혀 들어올 곳이 없는데 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뛰면서 “오늘부터 가을이니 더위 걱정하지 마.” 하는 깨달음을 주고 희망을 줬습니다.

귀뚜라미는 가을을 알리는 곤충입니다. 고로 그 무더위에 귀뚜라미를 보기만 해도 반가웠습니다. 달력을 보니, 8월 7일은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立秋)였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놓이고, 너무 더워서 땀이 줄줄 흘러도 희망으로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귀뚜라미를 통해 기쁜 소식을 알려 주는 ‘주님의 계시’였습니다. 내가 너무 더워서 괴로워하니, 주님께서 힘내라고 귀뚜라미를 보이며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 귀뚜라미가 2개월 20일 동안 내 방에서 나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가장 많이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건, 상황, 처지를 깨우쳐 주며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도 자연 만물을 통해 그 시대 니느웨 성의 상황과,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잠시 이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상1>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최악이 관영된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과 왕까지도 굶은 배 옷을 입고 먹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며,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성읍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언덕진 높은 산으로 올라가 박 넝쿨 그늘 밑에서 ‘하나님이 정말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으시려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살던 저들이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아 봐야 내가 왜 그렇게 외쳤는지 알 것인데.’ 하며 니느웨 성이 멸망받기만을 기다리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박 넝쿨을 예비하시어, 요나는 박 넝쿨 그늘로 인해 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벌레를 예비하시어 새벽에 그 박 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박 넝쿨이 다 시들어 말라 버리게 하셨습니다. 고로 그늘이 없어졌고, 뜨거운 햇볕이 요나에게 내리쬘었습니다. 요나는 너무 뜨거운 햇볕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야. 네가 이 박 넝쿨로 인해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셨습니다.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찮은 박 넝쿨을 귀히 여기고, 박 넝쿨이 시들어 죽으니 차라리 네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했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십이만 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나 여호와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이들이 꼭 멸망받는 것을 보려 하느냐. 이들이 다 멸망받아 죽으면 내가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용서하고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끝>

하나님과 주님은 자연 만물이나 사람을 통해서 여건, 상황, 처지를 깨

단계 하십니다. 고로 하나님과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고, 심혈을 기울여 삶 속에서 계시를 받으며 하나님과 주님과 교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 그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계시를 주셨지만, 계시에 대해 안 배웠기 때문에 계시를 받았어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제 모두 계시를 배워 하나님과 주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가 확실한지 확인하고, 확실하면 행하면서 증거하기 바랍니다.

성자 주님은 내게 지난 2개월 20일 동안 ‘귀뚜라미’를 통해서 합당한 것 200가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 말하면 ‘으악!’ 하고 놀랄 것입니다.

귀뚜라미가 선생의 방과 화장실에서 살아도 어느 때는 안 보이는 곳으로 기어 들어가서 15일씩 눈에 보이지 않았습다. ‘오늘은 주님께서 귀뚜라미를 통해서 또 무슨 계시를 주시려나?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나?’ 하고 찾아도 요것이 나오지 않았습다.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 있으니, 온 방과 화장실을 다 뒤지며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은 하도 안 보여서 ‘죽었나?’ 하고, 온 방과 화장실을 뒤져 찾았습니다. 그래도 없었습니다. 이때 성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같이 무력으로 하면, 내가 귀뚜라미를 통해 합당하게 깨우쳐 줄 것을 못 깨우쳐 준다. 순리로 해야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뚜라미를 찾다가 청소만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때나 무조건 귀뚜라미를 통한 계시가 오지 않았습다. 주님께서 합당한 때에 합당한 것을 깨우쳐 주실 때만 귀뚜라미가 나타났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 합당한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그런데 엿그제 새벽 3시에 18일 만에 드디어 귀뚜라미가 또 방에 나

타났습니다. 귀뚜라미가 무슨 짓을 하는지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신기한 것은 요즘은 찬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늘 화장실 문을 꼭 닫아 놓기 때문에 귀뚜라미가 들어올 구멍이 없는데, 어느새 귀뚜라미가 화장실에서 방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선생은 귀뚜라미를 보고 “너 신과 같다.” 하니, “전능자 신이 쓰시면 곤충도, 동물도, 사람도 자기 차원에서 신같이 행한다.” 하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강조>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성자 주님이 쓰시면, 인간 차원에서 신의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귀뚜라미는 천장으로 살살 기어 올라가더니, 천장의 어느 한 지점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귀뚜라미에게는 천장이 편한 소파다. 신기하다. 사람 같으면 땅에 편히 앉아 있을 것인데...’ 생각했습니다. 쳐다보는 내가 무서워서 천장에 올라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평소에는 내 머리에 몸에 붙어서 지내기도 합니다.

귀뚜라미는 10시간이 넘게 천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몸의 방향을 한 번도 안 돌리고 더듬이만 흔들고 있었습니다. 15시간 넘어서 밤중이 되었는데도 역시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휴지로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손을 하늘로 뻗어 귀뚜라미를 가볍게 건드리는 모습 표현) 그래도 꿈쩍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펴서 막 바람을 부쳤습니다. 그래도 귀뚜라미는 꿈쩍도 하지 않고 나를 쳐다봤습니다. (손을 하늘로 뻗고, 천장을 보고, 부채질하면서 말한다.)



귀뚜라미는 건드리면 펄쩍 뛩니다. 맞지요? 그런데 건드려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좀 놔둬라. 쳐다만 봐라. 내가 귀뚜라미를 통해 무엇을 보이며 깨닫게 하지 않겠냐. 네가 그것을 보려면, 건드리며 무력으로 하지 말아야지.” 하셨습니다.

선생은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을 쓰고 일을 하려니, 다리가 너무 아프고 저리고 힘듭니다. 귀뚜라미가 천장에 붙어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 그 괴로운 심정이 느껴집니다.”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맡긴 일이나 해라. 너도 저 귀뚜라미같이 한곳에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고 잠언을 쓰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남은 시간 동안 잠언을 썼습니다.

다음날 새벽기도를 하려고 일어나서 천장을 쳐다보니, 여전히 귀뚜라미는 천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그렇게 하고 있는 지 24시간이 다 돼 갔습니다. “너 대단하다! 초인 귀뚜라미다! 너 지금 철인 3종 경기 하고 있냐? 천장 붙어 있기 달인인 너를 따라가려면 나는 더 뛰어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쓰려고 백지를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천장을 쳐다보니, 귀뚜라미는 흔적도 없이 일순간 사라졌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떨어졌나?’ 하고 방바닥을 쳐다보았는데 없었습니다. 2~3분 동안 찾아봤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귀뚜라미가 사라졌습니다. 혹여 귀뚜라미를 통해 깨우쳐 줄 것이 있습니까? 오늘은 주님의 잠언을 받고, 그 잠언으로 새로 온 사람들을 위한 주일말씀을 쓰는 날입니다.”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붓을 잡아라. 내 말을 기록하여 새로 온 자들과 신임생들과 섭리세계 모든 자들에게 전해 주자.” 하셨습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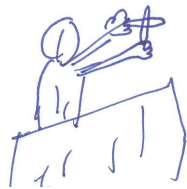
이날 59개의 잠언을 썼는데, 오늘은 그 잠언을 말씀으로 풀어서 해주겠습니다. 기대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뚜라미는 정확히 24시간 동안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23시간 59분도 아니고, 24시간 5분도 아니었습니다. 고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자 주님은 이날 첫 번째 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말씀> 하나님이 정한 때는 인간의 하루 24시간같이 천륜의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인간의 날 24시간이 되면, 하루를 1분이라도 더 연장하려 해도 못 하지 않느냐. 하루 24시간을 연장하면 다음날을 침범하기 때문이다. 24시간에서 1분이라도 넘으면 다음날 아니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는 축소, 확대로 정해져서 돌아간다. 정확히 24시간 있다가 귀뚜라미가 사라졌듯이,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겹쳐서 일체 되면, 이전의 옛 주권권은 끝나고 다음으로 계획된 새 주권권으로 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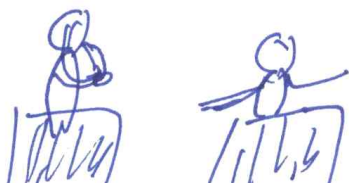
(양손 검지를 펴서 겹쳐서 일체 시키는 모습 표현)

이것을 깨달으라고, 귀뚜라미가 24시간 동안 천장에 붙어 있다가 정확히 24시간이 지나니 사라지게 했다. ‘때’를 깨닫게 하려고 이같이 했다. 네가 귀뚜라미를 그같이 할 수 있겠냐. 귀뚜라미 자기 스스로도 못하고, 누가 시켜도 못 한다. 천능자 나 성자는 신이니, 하지 않겠느냐. 하찮은 귀뚜라미도 내가 쓰면 그같이 행하듯이, 너희도 내가 쓰면 그같이 표적을 일으킨다. (하셨습니다.)

새로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믿고 따르면, 누구든지 육도 영도 표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본 제스처 : 팔꿈치를 굽히고 손을 펴서 앞으로 향하게 하는 모습 : 청중을 향해서 정중하게 표현한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과, 이 달에 새로 오신 분들과,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 모두 ‘자기 구원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도, 성령님도, 구세주 나 성자도, 나 성자가 쓰는 자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한 때가 될 때까지는 돕고 함께한다. 그러나 때가 지나면 하나님도 성자도 떠난다.” 하셨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가 양손이 떨어져 떠나가는 모습
: 천천히 여운 있게, 아쉽게 표현한다.)

★ 자기 때가 자기를 구원하는 때입니다. 하나님도 주도 ‘그때만’ 함께하십니다. 그러니 자기 때에 꼭 믿고 따라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놓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만일 지금이 ‘주님을 만난 처음 때’ 라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또 한 번 때가 옵니다.

★ 그러나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성 세계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믿어야 될 때를 놓치고, 마지막으로 새 역사로 부름 받고 왔습니다. 이번을 놓치면 다음에는 만나기가 정말 어렵고, 어떤 사람은 다시는 만날 때가 없기도 합니다. ‘때’는 ‘기회’입니다. 제때 못 하면 ‘때’라는 시간과 함께 ‘기회’가 영영 사라지고 맙니다.

★ 또한 올해 2012년은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전환되는 해입니다. 완전히 새 시대로 전환되기 전에 때를 놓치지 말고 저마다 꼭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한 이 말씀은 새벽 3시에 기도하고, 성자 주님께서 주신 잠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총 59개의 잠언을 기록했고, 그중에서 15개의 잠언을 가지고 설교로 풀어서 전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천장의 귀뚜라미를 보았느냐. 정한 때까지 천장에 붙어 있다가 때가 되니 애인 사라지듯 아쉽게 사라졌다. 이와 같이 때가 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때도 소리 없이 사라지고, 나 성자도 사라지고, 만물도 사라지고, 역사도 사라진다. 잠언으로 기록해라. / 때가 되니 귀뚜라미가 천장에 붙어 있듯이, 너도 고통 속에 이곳에 붙어 있게 되었구나. 귀뚜라미가 그 넓은 곳이 많은데도 자리를 안 옮기고 긴 더듬

이만 움직이며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니 소리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너도 이와 같이 이러하다. 정한 때가 와야 된다. 한 때 두 때 반 때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59개의 잠언으로 ‘때’에 대해 깊이 말씀해 주시면서 “때에 대해 깊이 깨달아라. 자기 때다. 역사의 때다. ‘때’는 마치 애인이 옆에 붙어 있듯이 하나, 때가 되어 경점이 되면 순간 사라진다.” 하셨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되면 그 후부터는 누가 뭐라 해도 그다음 날이 되듯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때’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때’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때가 지나면 애인이 소리 없이 사라지듯, 귀뚜라미가 소리 없이 사라지듯 사라집니다.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도 정한 때가 되면, 옛 시대는 소리 없이 사라지고 새 시대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 ‘때’는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옵니다. 고로 어떤 어려움에 처했어도 때는 오니, 때가 왔을 때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처지에서도 ‘때’는 시간이니 꼭 옵니다. 이때 참고 견디며 할 일을 해야 자기 때를 맞게 됩니다. 자기 때나, 시대의 때는 ‘기회’입니다. 고로 그 처한 데서 참고 견디며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선생도 이곳에 있지만, 여기서 할 때가 있으니 여기서 참고 견디며 밤낮으로 할 일을 합니다. 지금 이때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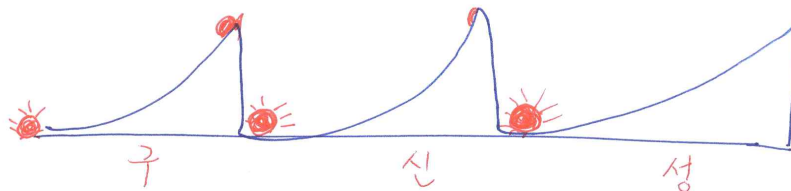
‘때’는 자기 혼자 맞고 행하면, 자기 육에 속한 것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구세주 성자 주님과 그가 보낸 사명자와 함께 때를 맞고 행해야 영원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이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성자 주님도 ‘때’를 정해 놓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하실 때도 아무 때나 안 하십니다. 먼저 ‘복음의 때’를 꼭 주시고, 그때 안 믿으면 때를 정해 놓고 심판하십니다. 또한 먼저 ‘회개의 때’를 꼭 주시고,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때를 정해 놓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화난다고 해서 그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공정하게 먼저 충분히 때를 주십니다. (‘심판하신다’ 할 때 인상 쓰면서 손으로 때리는 것을 표현한다.)

하루를 놓고 봐도 해가 지고 자정 12시가 넘으면 다음날로 바뀝니다. 이와 같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구역사에서 새 역사로 바뀝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 동안 구약역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성자가 오시고, 그 육인 예수님이 오시니 시대가 뒤바뀌었습니다. 구약 4000년 만에 새 역사인 신약역사로 뒤바뀌었습니다. 전 날 구약의 해가 아니라 다음날 새로운 신약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해’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구원자 예수님을 두고 비유하여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해가 뜨니, 새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구약 4000년이 끝나야 새 역사가 시작되니, 하나님은 때를 맞추어 성자를 보내시고, 그 육이 되는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기간이 있기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해가 떴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비로소 의로운 해가 떠서 세상을 비추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절대 신으로서 예수님의 해가 뜨고, 2000년 동안 그를 구원주로 쓰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니 신약 2000년의 해가 지고, 새로운 성약의 해가 떠오르는 때가 왔습니다. <끝>

역사의 때가 있어 계속 구약역사를 펼 수 없었듯이, 계속 신약역사를 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서 ‘구원의 차원’을 높이면서, 본래 계획하신 대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자께서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하늘나라로 데려간다.” 했습니다. 이것이 곧 주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이끌어 휴거시켜,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듯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한 말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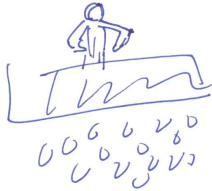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시간이 훨씬 지나도 안 오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지?’ 하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재림의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을 자신의 육으로 쓰시며 신약역사를 펴셨던 성자 주님은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안 오셨습니다. 고로, 어떻게 된 일이나며 모두 실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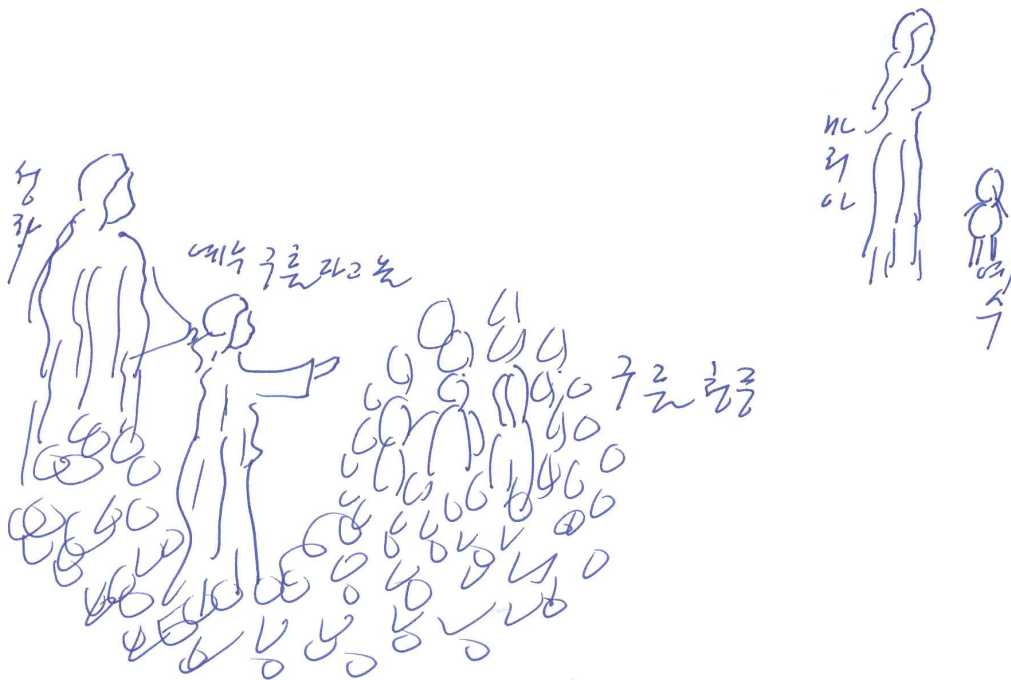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재림’에 대하여 성경을 풀기를 ‘옛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가 그 육신 그대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하며, 예수님이 육신 그대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풀면, 신이신 하나님과 성자가 오셔도 모릅니다.

재림 때 메시아는 ‘하늘 구름’ 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초림 때처럼 ‘인간 구름’ 을 타고 옵니다.



(기본 제스처를 하면서, 앞에 있는 청중을 가리킨다.)

신약 때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타고 왔습니다. 깨끗한 인간 구름을 타고 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새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저가 우리를 구원하러 왔구나. 구약에서 예언한 자이구나.’ 깨닫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청중 인간 구름을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지구 세상에 기독교 세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끝>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사람의 눈에 보이게 온다고 성경을 푸는 유대 종교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합니다. 구세주 예수가 온 지 이미 2000년이 지났고, 12년이 더 지났습니다.

성자께서 귀뚜라미를 내게 보이며 말씀하시기를 “귀뚜라미가 24시간 동안 천장에 붙어 있다가 하루가 가니 순간 사라지듯이, 개인의 때도 역사의 때도 때가 되면 사라진다. 하나님의 역사도 때가 되면, 옛 시대는 일 순간 사라지고 다음 새 시대로 뒤바뀐다.” 하셨습니다.

때가 왔는데 누가 아니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던 자들은 지금도 구약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며 구약 역사를 6000년 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4000년입니다. 예수님 오고 나서부터 새 역사인 신약역사가 시작됐으니, 구약을 통해 뜻을 펴는 것은 4000년 동안 하고 끝난 것입니다.

(*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구약 4000년이 끝나니, 하나님은 성자를 보내시고 그 육인 예수님을 보내어 신약 역사를 시작하셨고, 구약에서 소망하고 약속했던 것을 모두 신약 역사에서 이루셨습니다. 이 역사는 2000년 동안 펼쳐져 왔습니다.

신약 2000년이 끝났는데 성자가 다시 오셔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신약에서 소망하고 약속했던 뜻을 못 이루시겠습니까? 신약의 때가 가니, 이제 약속한 다음 역사, 곧 성약 역사를 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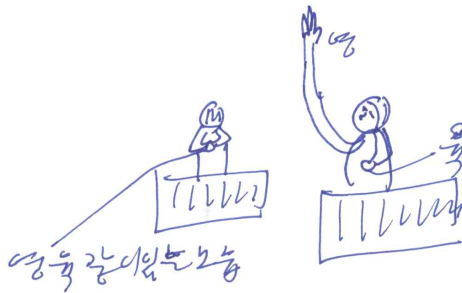
2000년 신약의 때가 가니, 하나님도 성자 주님도 벌써 재림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성자가 재림해서 오니, 1000년 성약 재림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때 하나님과 성자 주님은 땅에서 합당한 사람을 택하여 선지자나, 중심인물이나, 메시아로 삼으시고 그 육신을 쓰고 말씀하시면서 역사를 펴 나가셨듯이, 성약 때도 하나님과 성자 주님은 땅에서 합당한 사람을 택하여 그 육신을 쓰고 말씀하시면서 역사를 펴 나가십니다.

재림 때도 성자가 육으로 쓰는 자 역시 ‘사람 구름’ 을 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그에게 주신 시대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함으로 ‘청중 인구팀’ 을 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자는 그로 땅에서 ‘시대 말씀 나팔’ 을 불게 하여 믿고 따
른 자들의 육신을 휴거시켜 새 역사에서 살게 하시며 신부급 역사를 떠
나가시고, ‘천사장이 나팔’ 불고 성자 본체가 재림하시면, 육이 아닌 신
부로 변화된 영들만 휴거시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끝>



(‘육이 아닌 신부로 변화된 영들만 휴거시켜 천국으로 데려간다’

- 육은 왼손, 영은 오른손 :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있다가 오른손만 하늘로 올라간다.)

‘때’ 는 1분만 지나도 다음 때로 넘어갑니다. 하루 24시간에서 1분
만 넘어도 오늘이 아니고 내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도 정한
시간이 1시간만 넘어도 구시대 역사가 아니고 새 시대 역사입니다. (‘1분, 1
시간’ 할 때 오른손 검지로 ‘1’을 표현한다.)

때가 넘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실 리라 있겠습니까? 시대 보낸
자에게 시대 말씀을 주시어 벌써 34년 동안 새 역사를 떠 오셨습니다. 그
복음이 세계 몇십 개국으로 전해져 모두 말씀이 맞다고 하며 말씀을 외치
며 역사를 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 오늘이지, 어제입니까? 어젯밤에 잠들었어도 자정 12시
가 넘었으니 오늘입니다. 자면서 어제와 오늘이 바뀝니다. ‘시대’ 도
‘역사’ 도 사람들이 시대의 잠을 자고 있을 때 모르게 바뀝니다. 절대
시대의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는 자만 새 시대가 온 것을 압니다. 또한 깨
워 주고 알려 줬을 때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 새 시대가 온 것을 압니다.

선생은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때 시대가 바뀌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게 확연히 말씀하시기를 “잠자면서 어제와 오늘이 바뀌듯

이, 2000년이 되면 재림역사를 시작하여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뒤바뀔다.” 하셨습니다.

2000년 신약의 때가 가니, 재림의 약속을 이루는 새 역사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인간이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께서 세상의 육신 있는 자를 쓰고 하십니다.

절대 신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입니다. 그중의 성자가 땅에 오셔서 초림 신약 때는 ‘예수님’ 을 쓰고 신약말씀을 주며 신약역사를 선포하셨습니다. 고로 사명 받은 예수님만 알았습니다. 이같이 성자는 재림 때 또 오셔서 시대 합당한 자를 예비하여 그를 통해 시대 말씀을 주시고 새 역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명 받은 자만 압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하나님은 하루의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하루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시간’ 은 태양의 축소체입니다. 해가 뜨면 시계를 확인할 것도 없이 다음날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자께서 보낸 해 같은 사명자가 세상에 오면, 역사를 확인할 것도 없이 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끝>

성자는 신이십니다. 고로 보이는 합당한 사람을 쓰고 나타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파’ 는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타고 나타나겠습니까? 휴대폰이나 TV로 나타납니다. 전파가 안 보이지만 전파가 흐르고 있는지, 휴대폰으로 확인하겠습니다.

(- 설교자는 미리 휴대폰을 준비하고 한 사람을 미리 준비시켜, 이 설교 부분에서 전화가 오게 하여 받는다. 이때 스피커폰으로 전체가 다 들리게 하면 좋다. : 실감 나게 표현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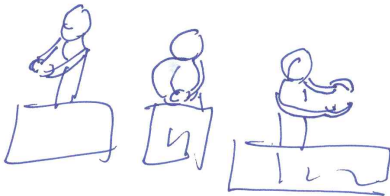
전파가 휴대폰을 통해서 나타나 통하게 하듯이, 신이신 성자는 사람인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 으로 나타나십니다. 땅의 사명자는 그 말씀을 전해 주면서, 전능하신 성자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자가 사명자를 통해 전하는 ‘때’ 의 말씀을 통해서, 성자를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1978년에 새 역사 섭리사가 시작됐을 때, 지구 세상에서 선생 딱 한 명이 성자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의 주인이 왔으니 새 역사 성약역사가 시작됐다. 온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시대 말씀을 듣고 구름같이 월명동에 모여든다.” 하고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결국 성자께서 나를 통해 하신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끝>

요즘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구름같이 모여드는데도 섭리역사를 못 믿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뒤떨어졌기에 못 믿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어제의 사람’입니다. ‘현대판 유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왔을 때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대 말씀을 믿는 대로 개인에도 가정에도 영적 축복이 갑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각 나라 여기저기 조금씩 있어 적은 인구류이지만, 수백 년이 가면 여기저기 큰 인구류가 됩니다.



(여기저기 조금씩 적은 인구류
- 두 손으로 여기저기 적은 인구류 표현)



(여기저기 큰 인구류
- 두 손으로 여기 이만큼, 저기 이만큼 크게 표현)

주님이 보여 주신 것을 선생이 보았기에 선생이 증거해야 해서 지금까지 선생이 많이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59개의 잠언 중에서 15개 정도를 설교로 풀어서 전해 줬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수요일에 해주겠습니다.

이제 성자 주님께서 나머지를 짧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영상8>

<성자의 말씀>

때가 되어 구시대 신약역사는 가고 성약역사가 시작됐다. 34년이나 됐다. 성경의 약속대로 시작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성약역사가 시작됐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온다고 말한 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나 성자가 육신 쓰고 왔다. 항상 기다리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온다. 성경 말씀대로 도적같이 은밀하게 먼저 와서 이미 역사를 시작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9>

4000년 구약역사가 끝났으니, 나 성자가 인구름을 타고 예수를 쓰고 와서 말씀을 외치며 신약역사를 알렸다. 이와 같이 2000년 신약역사가 끝났으니, 나 성자가 인구름을 타고 시대 사명자를 쓰고 와서 시대 말씀을 외치며 역사를 알렸다.

때가 되면 1분도 지체하지 않고 행한다. 혼인 잔치집에 손님들이 안와도 신랑과 신부가 오면 잔치한다. 신랑은 신부만 있으면 결혼한다. 이와 같이 역사의 주인을 지구 세상에서 뽑았으면, 하나님과 나 성자는 청중이 오든지, 안 오든지 역사를 시작한다. 역사를 시작하고 시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오고, 청중들이 몰려온다. <끝>

지금 너희도 너희 구원의 때가 되어 교회로 오게 한 것이다. 불리도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임금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하니 오라고 했는데, 안 온다고 해서 임금이 보낸 사람들이 억지로 끌어오겠느냐. “바쁘다. 싫다. 너나 가라.” 하는데 억지로 끌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도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불렀는데 안 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복음으로 불렀을 때 온 사람들만 데리고 시대 구원의 잔치를 하지, 사람들이 다 찰 때까지 역사를 시작하지 않고 기다리겠느냐. 신랑은 손님들이 다 찰 때까지 결혼식 안 하고 기다리지 않고, 때가 되어 신부가 오면 결혼식을 시작한다. 이와 같이 역사도 때가 되면 한 명이 와도 하고, 열 명이 와도 그들과 같이 한다.

구약이 지나고, 신약이 지나고, 지금은 성약 역사를 펴 나가고 있다. 고로 때가 되어 나 성자가 너희 선생에게 이 시대 말씀을 준 것이다. 때도 안 됐는데, 너희 선생이 시대 말씀을 달라고 하면 주겠느냐. 때가 되고, 하나님과 나 성자가 택한 자가 100% 조건을 다 세웠기에 이 시대 재림 말씀을 준 것이다.

이 시대 재림의 말씀을 들어라. 시대 재림의 말씀을 듣고 육도 영도 변화되어 시대 합당한 구원을 받고, 2000년 동안 희망으로 기다린 육신은 땅에서 휴거를 이루고 살며, 영은 변화를 입고 휴거되어 나 성자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이 시대 신부급으로 휴거된 영은 나 성자가 예비한 최고급 천국의 성약성에서 1차 1000년 혼인 잔치 기간에도 나와 사랑하면서 살게 되고, 1000년 혼인 잔치가 끝난 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사랑하며 살게 된다.

신약 역사 2000년 동안, 육신이 산 자들은 이 땅에서 자녀의 주권을 받아 역사를 펴면서 살았고, 육신이 죽은 자들은 영으로 낙원 영계에서 역사를 펴 왔다. 성약 역사는 성경의 약속대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도 영계에서도 신부의 주권을 받아 <천년왕국 혼인 잔치 복음 역사>를 펴 나간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0>

지금은 이 시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각 민족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있어 뭉게구름과 같지만, 시대 복음 역사를 수백 년 동안 떠나가면, 신약 때와 같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큰 인구름을 이룬다.

<끝>

나 성자가 선언하니 어제의 해가 아니고, 오늘의 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는 신약에서 피야 될 뜻을 2000년 동안 다 뗐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신약의 해가 아니고 성약의 해다.

성경에 ‘때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도 떨어진다’ 하지 않았느냐(마 24:29). ‘해’는 핵심자로서 모세 때는 모세, 예수 때는 예수, 이 시대는 나 성자가 시대 말씀을 준 너희 선생이다. ‘달’은 누구든지 해 같은 자를 증거하는 자를 말하고, ‘별’은 따르는 자들을 말한다.

새 역사가 오면, 해도 달도 별도 빛을 잃고 떨어지지 않느냐. 곧 사명자도 바뀌고, 증거하는 자들도 바뀌고, 따르는 자들도 바뀐다. 정치권이 바뀌면 해 같은 주권자도 빛을 잃고, 대통령을 받쳐 주던 달 같은 자들도 빛을 잃고, 그를 지지하고 따르던 별 같은 자들도 빛을 잃는다. 주권이 바뀌니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네 선생이 한국의 주권자는 누가 되느냐고 묻기에 ‘이름 특성’ 대로 된다고 했다. 누구인지 이름을 풀어 달라고 하기에 “내가 미리 힌트를 줬으니 네가 풀어야지” 했다. 너희나, 세상의 주권자나 충성으로 열심히 인생을 산 자가 결국 이름값을 하게 된다.



(기본 제스처 : 팔꿈치를 굽혀 양손을 펴고,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강조하기.)

너희에게 ‘때’를 말해 준 사랑의 성자니라. 샬롬!

(* 마지막 화면을 보면서, 말씀 마칩니다.) <영상11>

시 <귀뚜라미> (시 읽는 순서 ↓ 다음에 →)

북쪽에는	지난여름	이추운데	가을때도
눈이내려	무더위에	알몸이나	알려주고
설한풍이	땀이나고	네몸에서	시대때도
불어대고	열이났다	번질번질	알려주니
남쪽에도	네체질이	빛이난다	볼수록더
깊은가을	대단하다	올겨울에	신비하다
되어서루	그러니까	나와같이	성자주님
단풍들이	성자주님	견디면서	역사하지
휘날린다	너를보여	산다면은	아니하면
문틈으로	시대때를	성자주님	별볼일이
찬바람이	계시하여	너를보여	없어여라
불어대며	24시간	많은사연	사람들도
들어오고	천장불어	계시들을	그러하다
사람들도	한자리에	주실것을	
웅크리고	지내다가	희망한다	
야단인데	때가되니		
번데기가	흔적없이		
되어서루	사라지게		
알몸으로	하시면서		
살아가냐	시대때도		
	이와같이		
	이러하다		
	하였구나		

<마지막 자막> ‘때가 되면 어제에서 오늘로 뒤바뀌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옛 역사에서 새 역사로 뒤바뀐다. 이것이 진리다!’ <끝>

<축 도>

지금은 때가 되면 정녕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때가 되어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오시고 구원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섭리사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여 때를 깨닫고 자기의 때와 시대의 때를 놓치지 않음으로 때의 축복을 받기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